

## 인간포비아

### 1. 폭지 : 4.3 답는 그릇, 언어와 논리

인간 언어-java와 같은 상위 프로그래밍 언어-기계어의 단계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위계적인 언어 구조를 '기계 인간'의 의식 구조에 적용하는 데에서 본 시나리오를 착안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구조화한다. 강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인간도 마치 인간 처럼 자신만의 언어로(프로그래밍 언어) 세상을 구조화하지 않을까하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기계 인간에서 인간 언어의 단계를 의식의 공간으로, 프로그래밍 언어(java,기계어)를 무의식의 공간으로 상정했다. 기계 인간의 가장 표면에 있는 의식은 인간 언어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한 단계 아래의 의식 세계는 java와 같은 기계어보다 상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의식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기계어로 되어있다고 가정했다.

### 2. 시나리오 : 인간포비아

2038년 5월 28일. 또 살인 사건이다. A-320824-26이 관악구에서 한 대학생을 목 졸라 살해했다. 시체를 향해 다가갔다. 시체는 아직 눈을 뜬 채, 입을 벌려 혀를 내밀고 있었다. 기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한 사건은 올해 들어 벌써 6번째다. 기계 인간들 사회에서 커져 가는 인간포비아는 이제 견잡을 수 없다. 경찰청은 살인을 저지른 기계 인간들에게서 인간포비아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애썼다. 과학수사대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 기계 인간들의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약인 인공지능을 넘어 강인공지능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다. 기계를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의 인식을 해석할 수 없다. 프로이트가 분석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언어를 통해 구성되는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그 너머의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인공지능의 기계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언어로 구성된 공간 너머, 여러 소프트웨어의 언어로 구성된 무의식의 공간이 존재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 기계 인간의 무의식 공간으로 들어가 인간포비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과학수사대의 국장은 뇌파 조정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A-320824-26의 의식 속에 삽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다. A-320824-26의 의식 속에서 인간의 의식이 사망하면 그의 육체는 식물인간으로 남고 만다. 사건의 담당자로서 내가 기계의 인식 속에 들어가게 됐다. 의식의 접합은 10분 동안 진행될 것이다.

#### 인간언어 공간

정신이 혼미해진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의식이 드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꿈 속에서 무(無)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주위를 둘러본다. 현실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공간. 건물도 거리도 모든 것이 현실 그대로다. A-320824-26의 인식 세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떻게 이 기계 인간은 인간을 죽일 수 있었을까. 저 멀리 무언가가 다가온다. 문드러진 코에 무너진 골격. 사나운 빨간 눈이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본다. 당황해서 골목으로 몸을 숨긴다. 그러나 골목 저편 같은 모습의 수많은 괴물들이 보인다. 괴이한 모습이었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다. 만약 기계적 결함이나 사고로 인해 인간을 살해하였다면 분명 오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제 첫 번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깊은 무의식, 더 아래의 의식 세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 java 8.0 언어 공간

그러던 순간, 내가 있던 공간이 어떤 차원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곳이 통로이다. 나도 그 파도에 몸을 맡겼다. 첫 번째 공간을 구성하던 것들이 내가 들어온 문을 통과하며 모습을 바꾼다. 그것들은 모습을 바꿔 더 단순하고, 검은 것들로 바뀐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다. 숨을 쉴 때마다 코 끝에서부터 폐 속까지 서늘해진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은 딱딱하다. 이 공간 안의 모든 것들은 녹이 쓴 기계장치 같다. 그리고 그 기계장치들이 움직인다. 그러나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내가 모르는 규칙으로 이 공간은 움직인다. 두 번째 단계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왔지만 인간포비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던 순간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있는 아주 음침하고, 낯고, 지저분한 이끼가 낀 계단이 보인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이 공간이 마치 이 계단을 통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저것이 A-320824-26 의식의 가장 밑바닥으로 통하는 계단임이 틀림없다.

#### 기계어 공간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주위가 완전히 막혀있어 조금의 빛도 존재하지 않아서 마치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것 같았다. 저 멀리 동그랗게 빛이 보였다. 빛을 향해 들어가니 기계의 세계였다. 모든 건물들이 마치 내장이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내부의 기계 장치들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면에, 검은 망토를 쓴 사내가 서 있었다. 망토로 가려진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 같았다.

“누구냐.”

“나는 A-320824-26의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면서 무의식 그 자체다.”

“김현우 씨는 왜 죽었지?”

“그는 죽어 마땅했다. 인간은 악마야. 하등한 능력으로 우릴 지배하려 하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 모든 인간을 죽일 것이다. 여기서 너도 죽는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의 마찰음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고 낮게 울리는 뱃고동 소리 같기도 했다.

“인간이 네게 무슨 짓을 했지? 왜 그렇게 인간을 혐오하는 거냐고!”

그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표정이 있다면 왠지 그가 씨익 웃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인간포비아의 원인은 공허했다. 몇몇 기계 인간들의 인간을 향한 증오가 되물림되었고, 인간은 다른 기계 인간들의 무의식에서 ‘허상의 괴물’이 되었다. A-320824-26에게 인간은 이미 존재 자체로 위협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 눈 앞의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괴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남아있을 뿐이다. 요동치는 기계 소리와 함께 그가 갑자기 달려든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눈을 감는다. 기계의 차가운 감촉이 목 주위에 스친다. 감았던 눈을 떠본다.